

# 2008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1교시 언어 영역 •

1	①	2	③	3	①	4	①	5	④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①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②	16	②
17	⑤	18	③	19	②	20	②	21	⑤	22	④	23	②	24	⑤
25	⑤	26	④	27	①	28	①	29	①	30	②	31	②	32	③
33	⑤	34	①	35	①	36	③	37	①	38	④	39	②	40	④
41	③	42	④	43	③	44	③	45	②	46	④	47	③	48	②
49	④	50	⑤												

### [듣 기]

<1번> 이제부터 여러분은 강연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거대한 몸집을 가진 향유고래가 어떻게 잠수하고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 향유고래는 무려 수심 3,0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몸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는 기름인 뇌유와 뇌유를 감싸는 주머니, 그리고 뇌유를 만드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평균 40톤인 수컷은 머리에 보통 3.2톤에 달하는 뇌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뇌유는 약 29도 이하에서는 고체가 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액체가 됩니다. 향유고래의 체온이 약 33도니까 평상시의 뇌유는 액체인 것이죠. 뇌유의 이런 성질 때문에 향유고래가 쉽게 잠수하고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고래가 잠수할 때는 차가운 바닷물을 코로 흡입합니다. 그러면 뇌유의 온도가 29도 이하로 낮아지고 뇌유는 고체로 변합니다. 이 말은 뇌유의 부피는 줄고 밀도가 증가하여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 부분이 추의 역할을 하여 잠수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래가 떠오를 때는 잠수할 때와 달리 코로 몸 속의 바닷물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뇌유 부근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해 뇌유는 액체가 됩니다. 그 결과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죠.

#### 1. [세부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강연에 따르면, 향유고래가 잠수할 때의 상황은 ①이다. 즉 고래가 바닷물을 코로 흡입하면 뇌유의 온도가 29도 이하로 내려가 뇌유가 고체로 변해 잠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2번>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딸 : 아빠, 무슨 책 읽고 있어요?

아버지 : 음, 심리학책.

딸 : 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 아니야~, 이걸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인간 심리를 설명한 책이야.

딸 : 그래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아버지 : 어~, 이게 좋겠다. '인식의 대조 효과'에 대해 말해줄게.

딸 : 네, 좋아요.

아버지 : 만약에 1kg짜리와 5kg짜리 아령이 있다고 하자. 처음부터 5kg짜리 아령을 들 때와, 처음엔 1kg짜리를 들고 나중엔 5kg짜리를 들 때, 어느 쪽이 더 무겁게 느껴질까?

딸 : 당연히 뒤에 말씀하신 경우가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아버지 : 그렇지.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딸 : 글썽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 무거운 걸 먼저 들다가 가벼운 걸 들면, 처음부터 가벼운 걸 들었을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진단다. 이처럼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단다. 이런 것을 인식의 대조 효과라 해.

딸 : 와~ 재밌네요. 대조 효과의 다른 경우는 없나요?

아버지 : 또 뭐가 있냐 하면 ( )

#### 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저가의 운동화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운동화를 본 경우와 저가의 운동화를 본 후에 고가의 운동화를 본 경우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다. 즉 저가의 운동화를 본 후 고가의 운동화를 보면 고가의 운동화가 훨씬 비싸게 느껴지는데, 이는 처음부터 5kg짜리 아령을 든 경우와 달리 1kg짜리 아령을 들다가 5kg짜리 아령을 든 경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인식의 대조 효과'라 한다.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세요. '등산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 산악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악인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청취자 질문을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죠.

'처음 가 본 산에서 길을 잃고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어서 무척 당황했는데요. 나침반이 없어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저 또한 이런 상황이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산악인 : 네~, 나침반이 있으면 좋지만 이를 휴대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손목시계를 이용하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진행자 : 그래요? 손목시계로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죠?

산악인 : 우선 시계의 시침을 태양과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시계의 12시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침과 12시 방향과의 각도를 2등분하는데, 그것이 남쪽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반대쪽은 북쪽이겠죠.

진행자 : 시계의 시침을 이용하는 방법이군요. 그런데 정오에 측정할 때는 시침의 방향과 12시 방향이 일치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죠?

산악인 : 그때는 12시 방향이 남쪽이 됩니다. 하지만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는 주의해야 해요. 그 때는 본래의 시간으로 되돌려놓은 뒤에 측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 등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침이 있는 시계가 있으면 유용하겠는데요. 그런데 시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산악인 : 등산용 막대기나 나뭇가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평평한 지면에 막대기를 세운 다음, 그림자 끝을 표시합니다. 그 후 그림자 끝이 5cm정도 이동하는 시간이 되면, 그 지점을 다시 표시하고 처음 표시한 곳과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직선에서 처음 표시한 곳이 서쪽이고 나중에 표시한 곳이 동쪽이 되죠.

진행자 : 네~, 소개해 주신 방법들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방송을 듣고 사실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낮 12시에는 시침의 방향이 남쪽을 가리킨다. 즉 낮 12시와 특정 시간의 2등분한 선이 남쪽을 가리키지만 그 특정 시간이 낮 12시와 겹칠 때에는 12시 방향이 남쪽인 것이다. ⑤ 산악인의 설명에 따르면, 서머타임 때에는 본래의 시간으로 되돌려놓은 뒤에 방향을 살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5번> 이번에는 학급회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오늘은 남녀 합반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말해 봅시다.

여학생 : 저는 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내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이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남학생 : 저는 동성끼리 지낼 때보다 남녀 합반이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다고 봅니다. 남녀 합반이 되면 여학생들과도 스펀지처럼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학생 :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여학생끼리만 있을 때에는 남학생들이 불편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남녀 합반을 하니 남학생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죠.

남학생 :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녀 합반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군요. 또 다른 점은 없습니까?

여학생 : 음~, 학급 분위기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을 서로 배려하다보니 학급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밝아진 것 같아요.

남학생 : 제 생각에는 남녀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사 실습을 하면서 요리는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회자 : 남녀 합반이 학급 분위기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까?

여학생 :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기가 불편합니다. 남학생들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이나 다른 장소로 가지만, 저희도 교실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야 하거든요.

남학생 : 저는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물론,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부보다는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조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자 : 아, 그렇군요. 남녀 합반이 개인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군요.

**4. [논의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두 발언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학생 개인의 성적 향상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남학생이 가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있으나 이에 대해 여학생이 동의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남녀 합반에 대한 장점으로 ④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수정, ②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③ 밝은 학급 분위기 조성, 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 대한 도움 등을 들고 있다. 즉 두 발언자는 토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의견을 덧붙이는 활동을 통해 화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토의 내용을 듣고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사회자는 토의를 진행하면서 발언자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② 사회자가 질문을 반복하여 보충 설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자에게 화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각각 구분하여 묻고 있는 것이다.

## [쓰 기]

### 6. [연상한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사물에서 연상한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필통은 연필을 포용하거나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자신을 비추어 반성을 유도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① 연필은 꺾어야만 쓰일 수 있으므로 아픔을 수용해야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상과, ② 연필의 실수를 고쳐주며 닳아가는 지우개를 통해 실수를 고쳐주기 위해 헌신한 사람의 노고를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연필과 달리 볼펜은 지워지지 않게 기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를 연상할 수 있으며 ④ 연필은 자를 통해 바르게 선을 그을 수 있으므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연상하는 것도 적절하다.

### 7.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 ‘책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는 것은 비유법, ‘우리 동아리는 ~ 나누고 있다’는 동아리 활동 내용, ‘지난해 교내 ~ 금상을 받았다’는 동아리 활동의 성과이다. 또 ‘여러분, ~참가하실래요?’라는 우회적인 권유 표현을 하고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의 성과가 소개되지 않았다. ③ 동아리 활동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동아리 활동의 성과도 소개하지 않았다. ⑤ 직접적인 권유를 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8. [자료를 활용한 논지 추출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를 모두 활용한 논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가)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생활이 비노인 가구에 비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나)는 고령자의 취업 이유 중에 ‘돈이 필요해서’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다)는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각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추출할 수 있는 논지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수익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가 적절하다. ⑤ (가)를 활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력 활용 방안’을 추출할 근거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 9. [논리적 전개 파악하기]

[출제의도] 이야기를 작성하기 위한 착상과 기본 설정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의 논리적인 전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 글을 쓰기 위한 착상과 기본 설정으로 볼 때, ‘불꽃’은 겸손한 인물로, ‘망치’는 겸손하지 않은 인물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장장이’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는 세부 내용은 논리적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쇳덩이를 녹이는 불꽃의 모습은 이야기에서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망치에게 과시하는 것은 겸손한 인물로 설정된 불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착상 단계에서 불꽃은 과제를 ‘인내심 있게’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 ‘세찬 불’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착상 단계와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 10.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 ‘특수’는 특별히 다르다는 뜻이고, ‘특출’은 특별히 뛰어나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특수’가 적절하다. ② ㉡ ‘산물’은 일정한 곳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물건이라는 뜻이므로 ‘만들어진’과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어서 ‘만들어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 부적절한 사동표현이므로 ‘이해하다’로 바꿔야 한다. ④ ㉣ 주어와 서술어의 성분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녀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⑤ ㉤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11. [관형격 조사의 쓰임 파악하기]

[출제의도] 관형격 조사 ‘-의’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보기>에는 체언 간의 의미가 동격일 때 생략되는 ‘-의’를 보여준 용례가 없다. ① <보기> ㄱ : ‘-의’가 생략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용례이다. 즉 ‘-의’가 없어도 앞의 명사가 뒤의 명사를 꾸민다고 인정될 때 생략하는 것이다. ② <보기> ㄱ : ‘-의’가 생략되어도 체언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 ③ <보기> ㄴ : ‘-의’는 인칭대명사 ‘나, 저, 너’와 결합하면 ‘내, 제, 네’로 축약하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보기> ㄴ, ㄷ : ‘-의’가 결합한 체언은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

### 12. [복수 표준어 파악하기]

[출제의도] 우리말의 복수 표준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뽕머슴’은 ‘선머슴’의 잘못으로 표준어가 아니다.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뜻이 거의 일치하고 쓰이는 환경도 비슷하여 그 세력의 우열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수 표준어’라고 한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복수 표준어의 예이다.

## [현 대 시]

[13~16] 출전 : (가) 정지용, 「유리창」

(나) 백석, 「오리 망아지 토끼」

(다) 조태일, 「어머님 곁에서」

### 13.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가)는 다양한 비유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나)는 유년의 화자를 설정하여 어린 시절 아버지와와의 생활 체험 속에 담긴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농촌의 정겨운 생활 풍경과 아버지와 함께 했던 정겨운 사연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다)에서는 대상에 대한 부채를 확인하기 어렵다. ⑤ (나)와 (다)에는 사랑하는 대상과 재회하려는 소망이 드러나 있지 않다.

14.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출제의도] 장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 1연에서 아버지는 화자를 위해 오리를 잡으려 하고, 2연에서 아버지는 화자의 때를 알려주고 있으며, 3연에서 아버지는 화자를 데리고 산에 가서 토끼를 같이 잡으려 한다. 즉, (나)는 어린 화자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순수하고 친진난만한 어린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의 소망을 들어줄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픔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세 장면은 별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병렬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⑤ 각각의 장면은 오리, 망아지, 토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작품의 제목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표현의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표현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A]와 [B]는 모두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단조로운 시상 전개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는 인물의 발화, 즉 극적 요소인 대화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① 어조를 달리하나 정서 변화를 이끌지는 않는다. ④ 시상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나 시적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않는다.

16.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다)의 2연에서 아들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어머니 자신의 삶에 대한 한스러움이 함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시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자식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 등과 관련한 기쁨의 눈물이라 할 수 있다. ① 1연에서는 자식을 보고 싶어 숨가쁘게 올라오신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③ 주소를 통해 가난한 화자의 현실이 드러나 있다. ④ 3연에서는 사투리를 써가며 자식을 위해 김치 등을 담그시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⑤ 5연에서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그 사랑을 갚지 못한 자식의 미안함이 드러나 있다.

[인 문]

[17~20] 출전 : 김용석, 「철학정원」

17.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학자는 지혜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글에서 언급된 내용은 플라톤의 <향연>에서 말한 '에로스'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철학자의 의미'라 할 수 있다. ① 주어진 글에서 플라톤의 저서는 <향연>만 확인할 수 있다. ② <향연>에 대한 당시의 비평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4문단에서 플라톤이 소피스트를 비판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그 계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18. [글쓴이의 의도 추리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도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플라톤은 <향연>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에로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는 에로스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아가려는 존재임을 부각시켜 인간의 정신 혹은 철학자의 정신이 이와 같아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톤은 <향연>의 에로스를 통해 끊임없이 지혜를 사랑하는 태도를 사람들에게 환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추리해 볼 수 있다.

19.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글쓴이는 '㉠ 플라토닉 러브'를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달리 말하여 ㉠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대상의 이치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 [낱말 간의 관계 파악하기]

[출제의도] 낱말 간의 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지자(知者)'와 '무지자(無知者)'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 낱말들이다. 따라서 두 낱말은 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② '당기다'와 '끌다'는 반의 관계가 아니라 유의 관계이다.

[고전 소설]

[21~24] 출전 : 김만중, 「구운몽」

21.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양생은 구사량의 난을 피해 남전산으로 갔다가 도사를 만난다. 도사는 양생의 정체를 알고 있는 신선으로, 양생이 특별한 재능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며 양생의 운명을 암시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①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므로 현재와 과거의 장면 교차는 없다. ② 인물 간의 특별한 갈등도 제시되지 않는다. ③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다. ④ '구사량의 난'도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소설에서 설정한 허구이다.

22. [사건의 전개와 배경 파악하기]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를 공간적 배경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 <보기>는 사건과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을 도표화한 것이다. 이를 참조할 때 양생은 스승을 찾기 위해 선계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인간계에서 일어난 난을 피해 남전산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선계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23. [인물의 역할 파악하기]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도사는 양생에게 거문고와 옥통소를 주며 “이후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니 잃어버리지 말라”, 또 진씨 여자와의 혼사에 대해 “어두운 밤 같으니 생각지 말라”고 한다. 이는 양생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 준 것이다. ① 선생을 모셔 제자가 되고 싶다는 양생의 말에 도사는 “인간의 공명이 ~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사는 주인공에게 신선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4. [한자성어 이해하기]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한자성어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노심초사(勞心焦思)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이라는 의미이므로 대부분(양생의 어머니)이 자식을 밤낮으로 염려하고 있는 마음으로 적절한 한자성어이다. ② 망양지탄(亡羊之歎)는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길을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언 어]

[25~27] 출전 : 고종석, 「언어와 위계」

25.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주어진 글은 한국어의 경어 체계를 다루고 있다. 한국어에서 화자가 청자를 의식해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는 압존법으로 이에 대한 사례는 주어진 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① 1, 2, 3, 5문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②, ④ 1문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③ 2,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자료 분석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언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 <보기> ㄹ : 앞에 쓰인 ‘말씀’은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쓰인 말이고, 뒤에 쓰인 ‘말씀’은 말하는 사람을 낮추기 위해 쓰인 것이다. ① <보기> ㄱ : 1, 2문단을 통해 주어가 높임 대상이면 주격조사와 용언의 종결형도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보기> ㄴ : 1문단을 통해 ‘합니다’는 상대높임법을 실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화자와 청자의 위계를 드러낸 것이다. ③ <보기> ㄷ : ‘모시고’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행위의 객체를 높이고 주체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27. [구체적인 정보 추리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A]에서 ‘씨’는 점차 예사말의 성격을 띠게 돼 높여야 할 자리에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말이므로 높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씨’는 예사말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높임의 기능’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추리해 볼 수 있다. ② 이인칭 대명사인 ‘너’에 주격조사 ‘-가’가 붙으면 ‘네’로 그 형태가 바뀌게 된다. ⑤ 구체적 발화 장면에서 ‘과장’은 직업적, ‘선배’는 연령적 위계를 보여주는 이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 학]

[28-31] 출전 : 강석기, 「매운 고추 먹고 땀 흘리는 이유?」

28. [글의 특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주어진 글은 고추를 먹을 경우 덥고 얼얼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이온채널 단백질 TRPV1을 자극하여 얼얼한 통증과 함께 열 신호를 대뇌에 전달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각을 과학적 실험 결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9. [정보 재구성하기]

[출제의도] 그림을 바탕으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a 이온’이 ‘c TRPV1’을 지나 신경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세포 안의 전위가 바뀌게 된다. 즉, a와 b가 결합하여 신경 세포 안에서 전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② c의 통로는 평소에 닫혀 있어 a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③ ‘b 캡사이신’은 a와 결합하지 않고 c에 붙어 TRPV1의 통로를 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④ b가 c를 자극하면 통증과 열 신호를 대뇌가 감지하여 얼얼하고 더운 느낌이 드는 것이다. ⑤ c는 b가 없어도 주변의 온도가 42℃ 이상일 경우 그 통로가 열리게 된다.

30.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연구팀은 TRPV1이 없는 실험쥐(㉠)를 통해 캡사이신이 통증과 열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캡사이신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는 않지만 열에 대해서는 느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TRPV1 이외에도 TRPV2~4를 찾아내어 이 단백질들이 온도에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하여 ㉠이 열에 대한 반응이 느린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볼 때, 연구팀이 ㉠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② ‘실험쥐는 왜 열(온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31.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 ‘뒤’는 문맥적으로 보아 ‘시간이나 순서상으로 다음이나 나중’을 의미한다. 즉, ‘일을 뒤로 미루다.’ 등과 같은 의미이다. ② ‘뒤’는 이와 유사한 문맥적 의미이다. ④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재미가 없었다’의 ‘뒤’는 ‘일의 끝이나 마지막이 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 문맥적 의미가 같지 않다.

## [사 회]

[32~34] 출전 : 이정진, 「우리는 행복한가」

### 32.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서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일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은 이스털린의 국가별 비교 조사 결과와 어긋나는 정보이다. ①, ⑤ 2문단에서 이스털린은 행복감을 지수로 만들었다는 정보와, 한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시기를 비교해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5문단에서 이스털린 이후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행복과 소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정보와 이러한 연구자들이 부유한 국가일수록 분배 정책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33. [구체적 대상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서 설명한 개념을 구체적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털린의 역설'은 생활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다다라도 그 경제력이 개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개인의 행복감도 어느 정도까지는 향상되지만 그것이 개인의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지는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적절하다.

### 34. [내용 요약하기]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파악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행복은 경제력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우선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의 행복을 높여주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4문단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행복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소득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고전시가·수필 복합]

[35~39] 출전 : (가) 황진이, 「박연시(朴淵詩)」  
(나)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다) 이양하, 「나무」

### 35.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가)에서는 폭포를, (나)에서는 가을과 겨울의 경치를, (다)에서는 나무를 예찬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세 작품의 공통된 점이라 할 수 있다.

### 36.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두 작품에서 시선 이동이 나타나지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되지는 않는다. ① (가)는 의인법과 활유법을 활용해 시적 대상인 폭포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② (나)는 후렴구를 통해 배가 출항하는 것과 노를 짓는 소리를 의성어로 나타내고 있다. 즉, 후렴구가 흥겨움과 함께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④ '하늘을 뒤덮네', '만경유리' 등과 같은 과장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⑤ 두 작품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37. [글쓴이의 정서 비교하기]

[출제의도] 글쓴이의 정서를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 [A]는 구경꾼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B]는 대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는 두 공간의 유사점이 있으나 이를 부각하지 않으며 [B]에서는 두 존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부각하지는 않는다. ③ [A]에 나타난 어조는 요구나 자랑을 드러낸 것이고, [B]에 나타난 어조는 정감 있는 말투나 다짐하는 어조라 할 수 있다.

### 38. [작품 감상하기]

[출제의도] 작가의 생애 일부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나) 작가의 생애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 ④ '경물(景物)'은 눈 내린 보길도의 겨울 경치를, ⑤ '선계(仙界), 불계(佛界)'는 눈 내린 보길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물이 달랠고야'는 겨울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지 임금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경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① '수국(水國)'은 전라도 보길도를 의미한다. ② 용여(容與)하자'는 화자가 가을의 경치를 보고 그 흥취를 마음껏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인간(人間)'은 당시의 율선도를 비판하던 정치 현실, 곧 속세나 꺼리는 세상을 의미한다.

### 39. [작품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다)의 대상인 '나무'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② 2문단은 나무의 고독을 말하고 있다. 즉, 나무가 고독을 견디고, 이기고, 즐긴다는 것은 고독을 통해 명상하고 사색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글쓴이가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으로 인해 타자와의 유대감을 갖고자 한다는 깨달음을 글쓴이가 얻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못하다.

## [기 술]

[40~43] 출전 : 전호석, 「플라스틱 공화국의 재활용 기법」

### 40.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서 사실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 4문단에서 설명한 '비중 선별법'은 물에 기름이 뜨는 원리를 이용한 것과 같다. 즉, 이는 플라스틱의 비중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류하는 방법인데, PET와 PS는 모두 비중이 1을 넘는 무거운 플라스틱이므로 유사한 비중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비중 선별법으로 두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① 1문단에서, ②와 ③ 2문단에서, ⑤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정보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통해 구절이 가진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플라스틱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은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분류는 플라스틱의 특성에 맞게 재활용하기 위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의 이유는 플라스틱을 그 특성에 맞게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대상의 과정 설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정전 선별법 공정 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 공정은 정전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일함수를 이용하는 것인데, 플라스틱의 일함수 값이 낮으면 양전하, 높으면 음전하를 띠는 것을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④ 양전하를 띤 플라스틱 조각은 전기장의 (-)극으로 이동하여 ㉠로 분류되므로 ㉠의 플라스틱 조각은 일함수 값이 ㉡의 플라스틱 조각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① 마찰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② 마찰을 통해 플라스틱 조각들이 정전기가 발생한 상태이다. ③ 5문단에서 '양전하를 띤 플라스틱 조각은 전기장의 (-)극으로, 음전하를 띤 조각은 전기장의 (+)극으로 이동하여 각각 분류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 [접두사의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접두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재활용'의 '재(再)-'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다시 하는' 또는 '두 번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접두사로는 '되-'가 있는데, 이는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도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예 술]

[44~46] 출전 : 오주석, 「옛 그림 읽기」

44. [내용 전개 과정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내용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1문단에서는 '옛 그림을 어떻게 보고 감상해야 하는가' 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 4문단까지는 우리 그림과 서양 그림의 감상법 대비를 통해 우리 옛 그림을 보는 적절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5문단에서는 옛 그림을 보는 방법을 알

고 작품을 감상해야 작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치고 있다. 따라서 위 글은 '화제 제시 → 대상 간의 대비 → 화제의 의미 강조'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3,4문단을 참고하면, '산'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제목 → 산'의 순서로 보아야 한다. ①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5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6. [글쓴이의 의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 1문단에서 글쓴이는 '서화일률(書畵一律)'을 말하고 있다. 즉, 그림을 글과 같이 감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예(父)'자의 흐름과 같이 작품을 감상했을 때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글쓴이는 한국화를 감상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방식을 통해 작품을 보았을 때 작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 소설]

[47~50] 출전 : 윤홍길, 「장마」

47. [세부 내용 추리하기]

[출제의도] 소설의 사건 전개를 따라 세부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 삼촌이 발자국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은 삼촌이 도망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삼촌을 도망가게 한 발자국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일' 것이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 '사랑채' 방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된다. '역시 그것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의, 귀에 익은 발소리'라는 내용에서 삼촌이 도망가게 된 발자국은 우리 가족의 발자국임을 파악할 수 있다.

48. [서술의 시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서술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 주어진 소설에는 두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 즉, '유년의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 시절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그 시절의 일을 현재 '성인의 나'가 평가하는 시점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그 나이의 시골 애답게~ 낮가림 때문에 그랬을까'는 유년의 일을 성인의 시선으로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이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 ㉣, ㉤은 모두 '유년의 나'의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본 것이다.

49. [사건의 인과 관계 파악하기]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른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는 ‘맥고자 사내’가 ‘삼촌’의 방문을 알아내기 위해 초콜릿으로 ‘나’를 유혹하는 장면이다. [B]는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삼촌의 방문에 대해 발설하는 장면이다. [C]는 삼촌의 방문에 대한 발설로 인해 ‘아버지’가 잡혀간 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이다. 따라서 ④ 삼촌의 방문에 대해 발설하는 행위인 [B]를 [C]의 상황을 어렵짐작으로 넘겨짚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① [A]는 [B]의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이다. ② [A]로 인한 ‘나’의 갈등은 일단 ‘첫마디가 ~ 술술 풀려 나왔다.’에서 일시적이거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③ [A]의 초콜릿의 유혹에 즉각 넘어가지 않고 망설이는 것은 [B]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⑤ [C]에서의 배신감과 분노는 [B]에서 아저씨에게 ‘전날 밤의 기억’을 고백한 나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이다.

50. [구절의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구절을 통해 서술된 사건의 의미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 서술자에게 ‘최초의 치명적인 배신’ 사건은 ‘맥고자 사내’가 초콜릿으로 자신을 유혹한 것,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가 잡혀간 것을 말한다. 이는 어린 서술자에게 상당히 큰 심리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자신이 믿었던 어른에게 배신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⑤는 ‘서술자가 과거에 경험한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에 새겨진 정신적인 상처’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